

“세계장애인양궁대회 성공 개최 지원”

2025 새해설계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7만여 장애인의 건강 파트너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빛고를 장애인체육선수 일자리 발굴 확대, 실업팀 국제경쟁력 유지 및 추가 창단 추진 등 모두가 함께 빛나는 한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상득 수석부회장은 “2010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광주에서 15년 만에 다시한번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며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양

시안게임 등에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 양궁, 사격팀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장애인실업팀 창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상득 수석부회장은 “자치구 중심 생활체육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원 사업



장애인체육선수 일자리 발굴 확대·5개 자치구 실업팀 창단 전력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생활체육사업 활성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군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로 장애인양궁 저변 확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빛고를 장애인체육선수 일자리 발굴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한상득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의무고용 확대에 따른 장애인 채용 수요 증가에 발맞춰 더 많은 장애인체육 선수가 취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체육회를 믿고 장애인체육선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인력 및 전문체육지도자 추가 채용 등을 통해서 장애인체육 행정서비스 질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하는 국내 무대를 넘어 패럴림픽과 장애인아

종합성과 광역시 1위를 달성하며 7년 연속 우수시도에 선정됐다”며 “올해도 자치구별 특색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사업 전개를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처음 출범한 광주시장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에서 조성한 1억8백만원의 후원금이 복지 사각지대 체육선수 지원과 학생선수 장학금, 현장 지도자 강화훈련비 지원으로 이어져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 제2기 발전위원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체육회 자체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모범적 후원조직 결성 및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중기자

“함께 누리는 기쁨...새로운도약” 다짐

2025 새해설계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모두를 위한 스포츠, 함께 누리는 도전과 기쁨”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전남 장애인체육은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며 “특히,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전남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전남장애인체육 발전 방향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고,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원정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위상을 드높였다”고 말했다.

담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통합체육 증진 및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교실 운영 및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누구나 함께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넓혀갈 계획이다.

세번째는 장애인생활체육 보급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



장애인체육 홍보 활성화...통합체육 프로그램·인프라 확충 역점 장애인 선수 발굴·육성 ‘생활권 보장’ 기업 연계 취업 시스템 구축

이어 “지난해 장애인생활체육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으며, 우수 시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상임부회장은 “지난해 거둔 성과에 더해 올해는 전남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첫번째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체육 홍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대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를 활용한 장애인체육 정보 제공 및 소통을 강화하며 월간소식지, 블로그 등을 통한 장애인 선수 미

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확대를 제가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증대한다는 복안이다.

네번째는 전문체육 지원 확대 일환으로 장애인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연계를 통한 장애인 선수 생활권을 보장하며 훈련 시스템의 국제적 수준 향상 및 메달리스트 포상제도를 개선해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정현 상임부회장은 “함께 만들어 가는 장애인체육의 미래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김주형, 소니오픈으로 시즌 첫 출격 ‘첫 승 도전’

김시우, 2년 만에 패권 탈환 도전...안병훈, 지난해 연장 패배 설욕 노력

김주형이 9일 개막하는 소니오픈을 통해 2025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경기를 치른다.

총상금 870만달러가 걸린 소니오픈은 9일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파70·7천440야드)에서 열린다.

6일 끝난 더 센트리에어 2025 시즌 두 번째

대회지만 소니오픈에서 2025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들이 패한다.

더 센트리는 지난 시즌 투어 우승자 또는 페덱스컵 랭킹 50 위 이내 선수들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전 선수가 59명에 불과했다.

소니오픈은 144명이 나오는 새해 첫 ‘풀 필드(Full-Field)’ 대회다.

한국 선수로는 김주형과 이경훈이 소니오픈에서 2025 시즌을 시작하고, 더 센트리에 출전했던 김시우와 안병훈도 나온다. 더 센트리에선 단독 3위로 선전한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는 불참한다.

소니오픈은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꽤 깊은 편이다.

2008년 최경주가 우승했고, 2023년에는 김시우가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해 대회에서 안병훈이 연장전 끝에 준우승했으며 2021년에는

교보 선수 케빈 나(미국)가 1위를 차지한 대회다.

올해 김시우는 2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리고, 안병훈에선 지난해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낼 기회인 셈이다.

안병훈은 지난해 이 대회 연장전에서 약 1.5m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12m 장거리 버디를 잡은 그레이스 머리(미국)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2023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투어 3승째를 따낸 이후 우승 소식이 없는 김주형도 새해 첫 대회에서 정상에 도전한다.

김주형은 지난해 12월 이벤트 대회로 열린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과 그랜드 손턴 인비테이셔널에서 준우승하며 2025 시즌 개막을 벌여 왔다.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더 센트리에선 PGA 투어 역대 최다 인더파 기록인 35인더파로 우승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세계 랭킹 5위로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마쓰야마는 2022년 소니오픈 챔피언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김성한 전 KIA 타이거즈 감독 광주시야구소프트볼 회장 당선

김성한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제 13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에 당선됐다.

김 전 감독은 지난 6일 진행된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총 38표를 획득, 24표에 그친 박병석 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를 1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 전 감독은 해태 타이거즈의 창단 멤버로, 은퇴할 때까지 해태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던 타이거즈 원클럽맨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해태 타이거즈의 마지막 감독이자 KIA 타이거즈의 첫 감독을 맡은 그는 은퇴 후 현재는 CM B광주방송 해설위원을 맡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공약으로 ▲선수 등록비 폐지 ▲무등야구장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도입 ▲체육 특기자 배정 확대 ▲전용 구장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하고 협조를 얻어내 지역 야구와 소프트볼 발전 등



김성한(왼쪽) 전 KIA 감독이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 개표 후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김 전 감독은 “나후 제12대 회장과 임원들께서 광주 야구 발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뜻을 이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랫동안 광주에서 야구로 사랑받은 만큼 봉사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아마 추어 저변 확대와 발전에 노력할 것이고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기자

광주FC, 박정인 영입 ‘공격진 보장’

연령별 대표팀 에이스 출신... “팀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선수 될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2025 시즌 전력 보강의 신호탄을 쏘았다.

광주는 7일 “서울이랜드FC 출신 공격수 박정인(24)을 영입하며 공격진에 무게감을 더했다”고 밝혔다.

현대중-현대고 출신인 박정인은 2017년 후반기, 2018년 전반기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K리그 U-18 챔피언십 등에서 팀 우승과 동시에 득점왕을 휩쓸며 초고교급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2019년 울산HD에 입단해 프로로 데

뷔한 박정인은 이후 부산으로 이적해 2021년 29경기 8골 3도움을 포함해 64경기 16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박정인은 연령별 대표팀에서 또한 에이스로 활약하며 이름을 날렸다.

2015년 대한민국 U15 대표팀을 시작으로 U16 대표팀, U17 대표팀을 차례대로 거쳤으며, 2022년 AFC U23 아시아 챔피언십에 발탁되는 등 꾸준한 활약을 이어왔다.

박정인은 178cm·70kg의 탄탄한 체격

으로 중앙 공격수로서 타고난 위치선정과 날카로운 침투가 장점이며 어느 위치에서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인은 “광주 경기를 보며 이창호 감독에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더 큰 선수가 되겠다”며 “팬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팀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박정인 <광주FC 제공>

한국바둑중 출신 임지호 2025년 첫 프로기사 입단

한국바둑중학교 출신 임지호(15)가 새해 첫 입단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기원은 6일 열린 제20회 지역 15세 이하 입단대회 최종국에서 임지호가 바둑중 후배 윤준우(14)를 꺾고 프로기사 입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시작한 이번 입단 대회에는 15세 이하 지역 연구생 28명이 참가해 단 1장의 입단 티켓을 놓고 일주일간 열전을 펼쳤다.

임지호 초단은 “이전 입단대회 결정국에서 패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입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프로기사가 되겠다. 올해 목표



임지호 <한국기원 제공>

는 프로젝트 본선에 오르는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6년 바둑에 입문한 임지호는 2019년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지역 연구생으로 활동했다.

이후 한국바둑중학교에 진학한 임지호는 바둑 입문 9년 만에 프로기사 입단에 성공했다.

/연합뉴스